



(9) 장지랑 前 공군참모총장

■ 전라도 역사이야기

-나주 음성

“80년 5·18 발포자 색출” 주장했다 곤욕

“10·26이 일어나기 10일 전인 1979년 10월 16일께 꿈을 꾸는데 큰 행사가 끝난 뒤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차를 같이 타자고 해서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전복되더라고요. 나는 간신히 차에서 기어 나왔는데 대통령이 안보였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죠.”

지난 10월 2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한국군사학회 사무실에서 만난 장지랑(82) 전 공군참모총장이 정확히 27년 전의 기억을 꺼냈다. 그는 “꿈을 꾸고 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하는 불안감이 들었다”며 “그래서 갑자기 당시 비서실장에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10·26 당일 오전 김 실장이 “오늘도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으니 다음에 꼭 만나게 해주세요”고 전해왔고 그날 저녁 박 전 대통령은 서거했다.

장 전 총장은 “그날 대통령을 만났더라면 ‘10·26’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장 전 총장은 광주서중 4학년 때 시험을 쳐 1944년 1월 일본 육사에 입학했다. 장 전 총장은 “원래 일본 육사는 4년제였으나 태평양전쟁 중이어서 교육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

“1968년 美 푸에블로호 피랍때

전투기 추격중지 지시...전쟁 면해”

다”며 “1년 교육을 받은 후 항공사관학교를 지원했으며, 특히 조종 분야를 선택해 배우는 과정에서 해방을 맞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해방 후 바로 귀국, 나주 민립중학교 교사생활을 했다. 그때 만난 제자가 사돈이자 매일경제 창립주인 고 정진기 회장과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 등이다.

장 전 총장이 다시 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7년 해방된 조국의 육사 5기생으로 입교하고부터다. 그는 1년 후 육사를 졸업하고 바로 항공기지사령부에 배속돼 본격적인 군생활을 시작했다.

장 전 총장은 한국 공군 파일럿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고안해낸 주인공이다. 그는 “한국군이 한창이던 1951년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가 휴대하기 쉬운 물건으로 적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아군 수색대원에게 소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며 “그러다가 김영환 당시 전투비행단 제10전투전대장에게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출격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받아 들여졌다”고 말했다. 에어쇼 아이디어도 그가 처음 냈다. 지금은 에어쇼가 ‘국군의 날’ 행사 등의 단골 메뉴가 됐지만 54년 전인 1952년 7월 그가 미 공군대학 연수를 마치고 귀국, 에어쇼를 하자고 건의했을 때만 해도 낯선 개념이었다. 그 해 10월 1일 공군은 준비기간이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 에어쇼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1966년 8월 중장 진급과 함께 제9대 공군참모총장 명을 받은 그는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피랍 당시 상황을 잊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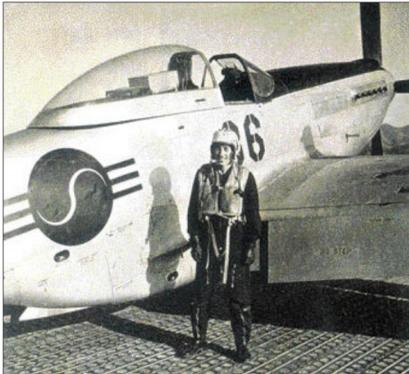
약력

- ▲1924년 12월 나주 삼포 출생
- ▲광주서중, 일본 육사(60기) 및 태릉 육사(57기)
- ▲1968년 공군참모총장
- ▲에디오피아·필리핀·덴마크 대사
- ▲10대 국회의원
- ▲현재 한국군사학회 회장

한다. 그는 “미국이 푸에블로호 피랍 직후 남한 공군에 출격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3개 전투기 편대가 출격했지만 푸에블로호는 이미 북한 방공망 속으로 진입한 상황이라서 추격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방공선 안으로 우리 전투기가 들어가 작전을 수행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 확실해서 돌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냉정한 판단으로 전쟁을 막은 것이다.

장 전 총장은 그해 8월 20여년의 군생활을 접었다. 그는 이후 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1년 정도 하다가 에티오피아, 필리핀, 덴마크 대사를 차례로 지냈다. 또 1979년 귀국, 유정희 국회의원의로서 짧았지만 정치의 길을 걷기도 했다.

장 전 총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그



지난 1952년, 강릉 제10 전투비행단 전대장 시절 전투기 앞에 선 장 전 참모총장.

는 “12·12 직후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 회 회의차 미국을 방문하는 나에게 유엔사령관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부탁을 했다”며 “당시 유엔사령관은 12·12 때 전두환이 마음대로 군대를 빼냈다고 만나지 않으려 했는데 때문에 미국 측 관계자 30여명을 만난 후에야 간신히 허락을 받아냈다”고 기억했다.

그는 또 “그런데 전두환이는 아쉬울 때 부탁만 해놓고 나중에 고맙다는 말 한 마디 없었다”고 서운해 했다. 장 전 총장은 대통령을 지냈지만 육사 후배인 전 전 대통령을 호칭없이 불러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전 전 총장은 80년 5·18 이후 신군부와 멀어지면서 정계에 서마져 은퇴의 길을 걸었다. 그는 “80년 5월 신군부 측으로

파일럿 상징 ‘빨간 마후라’ 고안

국군의 날 ‘에어쇼’ 아이디어도

부터 광주에 가서 수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청 앞 관광호텔까지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들이 나에게 ‘술 취한 군인들이 총을 쏘았다’고 말해줘 당시 상황을 알게됐다”며 “서울에 올라와 전두환이가 보낸 사람에게 화를 내며 ‘나중에 큰 일 날 수 있으니 발포한 놈을 찾아서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 일주일 뒤 장 전 총장의 집은 군인들에 의해 포위됐고, 한동안 외출조차 하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그는 골프광이다. 구력 52년에 지난 2002년까지 32개국 227개 골프장을 이용했다.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 두번은 골프를 친다. 또 매일 군사학의 사무실에 출근한다. 최근에는 안보 불안을 우려, 원로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광주를 찾았다. 작통권 이전 반대 및 북핵 규탄 1천만 서명운동차 온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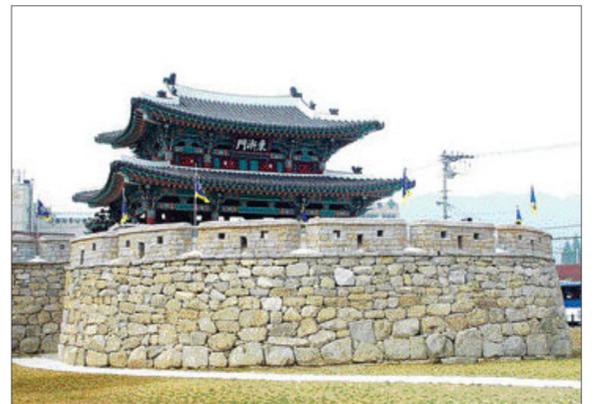
조선시대 광주 음성의 3배 크기 한양과 지세 흡사 고관 다수 배출

옛 관아로 유명한 곳은 남도음식축제장인 순천 낙안읍성이다. 지난 달 19일 나주에서는 나주읍성의 동문인 동점문 낙성식이 거행됐다. 지난 1993년 남문인 남고문을 복원하여 4대 문지를 국가사적 제 337호로 지정받았다.

음성복원은 나주를 역사문화도시로 꾸미는 일환이다. 기존 객사인 금성관(유형문화재 2호), 동헌 아문인 정수루(문화재자료 86호), 목사내아인 금학헌(문화재자료 132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모습을 드러낸 금성관 동·서익랑과 망화루를 비롯해 동헌 제급헌, 서·북문인 서성·북망문과 성벽, 향청도 복원될 예정이다.

나주 읍치경관을 연구해온 윤여정에 따르면 나주읍성의 둘레는 3.7km, 면적은 30만평 정도로 전주읍성을 능가하고, 광주읍성의 3배나 된다고 한다. 조선시대까지 나주의 지위를 짐작케 한다.

서거정(1420~1488)은 여지승람에 “나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커서 민물이 번성하다. 땅이 또한 바닷가라 배비가 많이 나고 물산이 풍성하여 전라도 조제가 모이는 곳이다. 사방의 상인들이 몰려온다”고 했다. 이중환(1690~1756)은 “나주의 지세가 한양과 흡사하게 때문에 예부터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많다”고 택리지에 기록했다.



최근 복원된 나주읍성 동점문.

나주는 반남과 다시의 고분, 왕건의 진흥, 지방에 최초(1470년경) 개시한 나주장, 조운창인 영산창 설치로 이어지는 호남의 으뜸골로 자부할 만한 광명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8세기 말에는 호구가 2만여호 6만평 정도에 이르렀고, 관할하는 토지가 33면 33성에 걸쳐 2만결이 넘어 전국 5위에 이르렀다.

나주성은 후백제 부흥운동 때 이연년, 고려 때 삼별초, 한말 동학군에게도 넘어가지 않았다. 19세기 말 23부제 실시 때 나주부에는 광주, 영암, 흥양, 보성 등 16개 군이 소속되었다. 나주관할 성씨를 보면 1908년 호구단자에는 116성, 1985년 인구센서스에는 73성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신안과 무안, 광주 일부가 나주 소속이었다. 흑산도와 지도는 물론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리, 광주 경동공단도 나주 땅이었다. 지금도 옛 나주영역이었음을 나타내는 지명이 곳곳에 남아있다.

진도 일회면 나주섬, 신안군 바다에 나주수도, 자은도 나주장사퇴, 암태도 나주석섬, 영암 도포면의 나가작과 나주마태가 본보기다.

1896년 단발령 사건 이후 수부(首部)로서 위상을 잃고 말았다. 광주의 위성도시로 전락하여 현재 인구 10만명선이 무너져가고 있다. 나주는 영산강 고대문화권, 음성복원 사업으로 고색창연한 읍내, 혁신도시가 들어설 금천, 백길복원을 기대하고 있는 영상포가 있다. /김경수(사향도문화진흥위원장)

FURSYS 퍼시스 컴퓨터

초대형 모니터는 물론한 인기버라이어티를 즐겨보세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퍼시스 컴퓨터와 함께 인생까지

무등산업

FURSYS 가 만든 의자는 다릅니다

퍼시스의 속삭임 노하우로 만든 첨단 메카니즘의 전 시리즈

JOY

REPLY

퍼시스 남광주전시장 (062) 225-5100